☆ 한국 교회 인물사 ☆

한국 보수신학의 거목 박형룡(朴亨龍) 박사

심 군 식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고신) 총무
· 아동 문학가 / 시인 / 본지 편집인

조직신학자로 널리 알려진 박형룡 박사는 큰 업적을 이 땅에 남겨 놓고 가셨다.

1977년 필자가 집필한 한상동 목사의 전기 추천사를 받기 위해 박 박사를 찾아갔을 때 그는 80 고령인데도 집필을 하고 계셨다. 자신이 지금까지 쓰신 조직신학을 마지막 손질을 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의 저서로는 교의신학 7 권, 신학 난제선편 2 권, 비교종교학, 변증학 험증학, 각 1권, 신학 논문집 2권, 설교집 5권, 회고록 1권, 성경주석 7권 등이다.

그는 젊은 나이에 평양 신학교 교수를 하였으며 만주 신학교, 동북 신학교, 부산 고려 신학교, 서울 장로회 신학교 교장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쳤다.

그의 문하생은 3,000 명이 넘는다. 그 문하생들이 지금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또는 목회 현장에서 성공적인 목회자로서 보수주의 신학과 신앙을 선포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는 1887년 음력 3월 28일, 평북 벽동군 운서면 운하동에서 태어났다. 자라면서 교회에 출석하였고, 당시 그가 출석하던 벽동교회에는 "예수 천당"으로 유명한 최봉석(권능) 목사가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박형룡 박사는 어려서부터 신앙이 뜨거운 최봉석 전도사의 영향을 받아 뜨거운 가슴으로 믿음을 굳혀 갔다.

1913년 4월 평북 선천 신성 중학교에 입학하여 신식 학문을 배우면서 방학이 되어 집으로 내려오면 최봉석 전도사와 함께 노방 전도를 열심히 하였다.

1915년 2월, 선천 북교회에서 양정백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문답시 양 목사가 "앞으로 박군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목사가 되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그는 세례 문답시 말한 그대로 목사가 되었다. 목사가 되어도 신학자로서 목사가 되었다. 개혁주의 신앙의 목사가 되어 수천 명의 목사를 길러 낸 귀한 목사가 된 것이었다.

1916년 3월, 신성 중학교를 졸업한 후 평양 숭실 전문학교에 입학을 하였다. 여기서 성적이 뛰어나 서열도 선교사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였고, 졸업을 하였다.

졸업 후 전도대를 조직하여 전국을 다니며 전도에 힘을 기울이다가 목포에서 일경에게 연행되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다. 목포 경찰서 유치장에서 2개월간 미결수로 복역을 하였다. 2 개월 후 재판을 받았는데 8 개월의 형을 받았다. 그리하여 다시 8 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으니 10 개월간을 감옥에 있은 셈이다. 그동안 그는 감옥에서 기도와 명상으로 그의 신앙심을 더욱 견고히 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 유학의 꿈도 이 감옥 안에서 키웠다.

1921년 8월, 그는 중국으로 건너갔다. 남경에 있는 곰능 대학에 편입하여 1923년 7월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해 9월 미국으로 가게 되어 프린스톤 신학교에 입학하여 메이천 박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도를 받았다으며, 1926년 5월에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해 9월, 켄터키주에 있는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수학하였고, 1927년 5월, 수료하고 귀국하였다.

8월에 신의주 제일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하였다. 1928년 1월 평양 산정현교회 전도사로 새로 부임하여 열심히 교회 일에 종사하였으며, 1929년 5월 평양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1930년 8월까지 산정현교회 동사 목사로 시무하다가 1930년 9월에 산정현 교회 시무를 사임하고 평양 신학교 교수로 초빙되었다.

1933년 1월에 최종 수업을 받았던 미국 켄터키주 침례교 신학대학원에 제출한 논문이 통과되어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34년 6월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성경주석 집필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주석 사업에 몰두하면서 신학 강의도 계속하였다.

1941년,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성직자를 검속하는 바람이 일자 국내

에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 만주로 갔다. 만주 봉천에서 봉천 신학원 교수직을 맡았다. 해방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 해방과 함께 동북 신학교로 자리를 옮겨 교장직을 맡고 있었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려 하였으나 한국은 38선이 생겨나 남북이 갈라졌고 어느 쪽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이 무렵, 부산에서는 출옥 성도 한상동 목사, 주남선 목사, 손양원 목사 등이 박윤선 목사를 중심으로 고려 신학교를 개교시켰다.

평양 신학교가 1938년 9월 이후 신사 참배 반대로 문을 닫게 되자 시국을 인식하면서 조선 신학교가 개교되었고, 해방 후 한국에는 유일하게 조선 신학교가 자리를 굳히기 때문에 평양 신학교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가는 신학교로서 고려 신학교를 시작한 것이다.

고려 신학교에서는 박형룡 박사를 모셔 오기로 하고 사람을 보내기로 하였다. 일차 남영환 전도사가 출발하였으나 콜레라 때문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 송상석 목사가 생명을 걸고 만주로 출발하였다.

1947년 5월. 송상석 목사는 영구행 밀선에 편승하여 험한 파도를 헤치고 만주로 갔다. 무사히 만주에서 박형룡 박사와 그 가족들과 함께 9월 말에 인천에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여생을 보낼 뻔한 박 박사를 서울로 모시게 되었다.

1947년 10월 14일, 박형룡 박사는 부산 중앙교회당에서 고려 신학교 교장에 취임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 박사의 주변 사람들이 부산에서보다 서울에서 더 큰 신학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상경하게 되었다. 1948년 6월, 서울 장로회 신학교를 개교하고 교장 자리에 올랐다.

이 일로 고려 신학교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한상동 목사는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필자가 1977년 박 박사를 만나 이야기 했을 때, 그는 "그랬을 것입니다"고 긍정적인 말을 하였다.

서울 남산에서 시작한 장로회 신학교는 부지를 크게 확보하기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그무렵 숭의 여학교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을 세웠다는 박호근이란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과장 소개하며 나섰다.

박형룡 박사는 세상 일에는 밝지 못하였기에 사기성을 띤 박호근을 그대로 믿고 땅을 매도한다 하며 나선 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사회 허락도 없이 3천 16만 2천 1백 72환의 돈을 의심 없이 지불함으로써 완전히 사기를 당한 것이었다.

이 문제로 이사회가 소집되어 전원 사임을 하고 박 박사도 교장직을 내어 놓게 되었다. 이것은 일생 일대 큰 실수였다.

1951년 9월, 장로회 신학교 평교수로만 강의하다가 1953년 9월에 다시 교장직에 올랐다.

1954년 10월에는 신학 교육 공로가 총회에서 인정이 되어 세계 신학계를 시찰하는 세계 일주의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1972년 3월, 명예 학장으로 추대되어 강의와 주로 집필에 전념하게 되었다.

1975년 10월 서울 노회(합동측)에서 공로 목사로 추대되었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탐구열과 집필 의욕으로, 그간 미완성으로 미루어 놓은 강의안을 책으로 묶었고 계속 집필을 하였다.

1978년 합동측 총회가 분열의 위기로 치달으며 뒤끓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초연히 벗어나 10월 25일 푸르게 높아진 가을 하늘 아래, 붉게 먼동이 터오던 오전 6시, 서울 봉천동 자택에서 조용히 이 땅의 먼지를 털고 눈을 감았다. 향년 82세였다.

평생을 개혁주의 신학 정립과 인재 양성에 전력을 기울였던 신학계의 거성 박형룡 박사는 큰 발자국을 남겨 놓고 이 땅의 생을 마감하였다.

*표지 그림 감상

인생의 축소판

최 석 진
(개혁주의신행협회 사무국장)

망망한 바다
한 무리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무수한 포말이 일어났다 꺼지고 ….

철부지 하동(河童)은 모래성도 쌓고 모래집도 짓고
줄을 그어 제 분계선을 표시해 두고
조개를 주우며 얘기를 나누지만
그 앎이란 뉴튼의 말뜻처럼 바다 대 조개 비율

파도가 세차게 밀려올 때면
이제껏 쌓은 것들 모래 속으로 사라지나
그래도 다시 쌓고, 짓고, 줍노라.
재미에 빠져 집 생각 잊었다가
정작 해가 지면 다 두고서
엄마 부르며 집 찾아간다.